

2020년 11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우리들의 행복한 마을이야기

제13호

가자~남해바래길걷기
체험 현장 속으로~



[발행]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담당

[편집] 성정은 / 문의 : 055.268.1523

- 1. 산청군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 2. 2020 마을교사 역량강화 연수
- 3. 보물섬행복교육지구 생활터전학교
- 4. 이달의 사람책 - 양산마을교사 곽동주

TOP NEWS

산청군 행복교육지구 협약 및 지리산 도서관 개관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2021. 행복교육지구 추진업무협약식 및 산청지리산도서관 개관식을 10월 27일(화) '지리산 사락 문화의 Book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산청지리산도서관 2층 시청각실에서 가졌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해 지역교육기반을 조성하는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양 기관의 협력으로 조성한 산청지리산도서관에서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천왕봉행복교육지구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행복학교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을 위하여 2021년부터 행복교육지구를 2년 간 추진하며, 경남교육청과 산청군이 각각 2억원씩 대응투자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산청군에 산청지리산도서관 개관과 천왕봉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교육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교육으로 행복한 산청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을을 흔들어라, 이제 마을이 학교다

마을의 미래를 주제로 '마을교사 - 교육감과 함께하는 미래공감 토크'



마을교사와 교육감의 미래공감토크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22일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에서 열린 2020 마을교사 역량강화 연수에서 '코로나 위기시대 마을교사가 준비한다'를 주제로 공감토크를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누어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9개 행복교육지구(김해, 밀양, 양산, 남해, 진주, 사천, 고성, 하동, 합천)에서 선정된 80명의 마을교사가 참석하였다.

특히 마을교사들과 교육감이 함께 미래의 교육을 고민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교육감과 함께하는 미래공감 토크'로 진행되었다. 공감토크 진행을 맡은 행복마을학교 박경화 센터장은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통의 문을 열었다.



마을교사와의 스케치북톡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에 필요한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서 걸림돌과 디딤돌은 무엇인지, 코로나19 이후 마을교육공동체가 가야할 방향 등을 교육감과 고민하고 소통하였다.

참석한 마을교사들은 “마을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다. 함께 경남의 미래교육을 고민하는 자리라 마을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사장 수여식 모습

박종훈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에 힘쓴 마을교사들에게 일일이 감사장을 전달하고 “학교와 마을이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따뜻한 배움터가 되도록 마을교사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생태계 확장에 마을교사들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남해 바래길걷기 원정대 모여라~

- 남명초등학교 교사 서영현 글

남해의 남명초등학교 학생, 선생님들과 보물섬행복교육지구 생활터전학교 '바래길걷기역사학교' 최정민 바래선생님이 함께 걷는 '남명 바래길 원정대' 이야기입니다.

남명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남면에는 남해바래길 1코스 다랭이지깃길, 2코스 앵강다숲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래길이 있는 지역에 살아도 바래가 무엇인지, 바래길이 어떤 것인지, 동네 바닷가에서 보이는 섬이름은 무엇인지 등을 알고 있거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바래(길): 남해 어머니들이 가족 먹거리를 마련하러 바닷물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 조개, 고둥, 미역이나 파래 등 해산물을 채취해 생계를 잇던 작업(해산물을 머리에 이고 오던 길)

10월의 마지막 주에 남명초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바래길을 잇기 위해 모였습니다.



걷기 전 안전교육과 준비운동. 중요한 물과 간식도 챙깁니다.



해동 명고 자라는 시금치밭. 월포 마을길따라. 여유, 집담, 웃음

우리가 정한 1코스는 학교~마을길~월포, 두곡해수욕장까지. 2코스는 용문사 탐방, 3코스는 용문사 일주문~숲길~이동 신전 앵강다숲까지입니다.

재작년에도 학생들과 다녀온 코스인데 올해는 일찌감치 보물섬 행복교육지구 생활터전학교의 바래길걷기역사학교 선생님께 신청해 두고 학교 자체 사전답사 후 코스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남면 앞바다 정면의 소치섬. 솔을 닮았다 해서 '솔이다', 소치섬입니다. 그 옛날에는 물건이 별로 없으니 그랬을 것입니다. 노도와 유배이야기도 듣고요.



남해의 보물
유문사 대웅전 탐방

미션 사진 찾기에 집중,
열정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신문기자나 여행작가를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친구에게 이번 바래길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엄쉬엄 쉬어가며 놀아가며 걷고
나니 11키로 이상 걸은 듯 합니다.

날씨는 걸기에 덥지도 춥지도 않고, 적당히 땀이 나는 게 걸기에
알맞은, 단풍도 이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한 명의 낙오자, 부상자 없이 길 따라~친구 따라~걸어간
목적지에 손수 만들어 가져간 작은 깃발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해냈다! 나를 넘었다!"를 외쳤습니다.

짧지만 이 하루의 도전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래! 봅니다.



남해 바래길 원정대. 작은 깃발을 쫓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이달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소통디자인을 꿈꾸다

지은이 : 곽동준

디자이너(시각, 웹, 편집)
양산마을활동가 및 웹툰마을교사



양산 제1호 마을교사가 되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쌍둥이 초등학생의 아버지 곽동준입니다.

대학에서 산업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을 전공하여 현재는 양산에서 디자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고 있어 시간에 자유로움이 많아 주변에 이것저것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학부모라 그런지 아이들 교육과 학교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 학교에 도움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씩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들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아버지님! 내랑 일 좀 함 해 보이시더~!”

아이들 학교의 담임이자 교무부장을 맡으셨던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담임으로 계시면서 아이들에게 참 좋으셨던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게 되어 아쉬움이 컸었는데, 마침 갑작스레 연락이 오셔서는 같이 일을 하자니 어리둥절 했었습니다.

일단 교육지원청으로 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하는 궁금함과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그 곳을 찾았습니다.

찾아간 곳은 양산행복교육지원센터.

2~3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담임선생님과 시청 직원 두 분이서 환한 웃음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을 뵈었기에 반갑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시 길래 학교에 계셔야 할 분이 여기에 있을까? 나는 왜 불렀을까? 생각했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생소한 이름의 공간에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자원봉사자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주셨고, 저는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실 때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모습이 있기에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산교육지원청 1호 마을교사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동아리 푹딱딱딱 <재활용을 이용한 허수아비 만들기> 수업

갈수록 더 많은 아이들을 품게 되는 마술같은 시간들

마을교사, 마을학교 지킴이, 마을활동가, 행복토론축진단 대표, 이장, 디자인회사 대표....

언젠가부터 저를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하나 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좀 더 신나게 놀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양산행복교육지원센터가 관내의 초등학교의 유휴 공간을 지원받아 지역의 다재다능하고 유능하신 마을교사 및 마을활동가들과 함께 멋진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뜻, 같은 꿈을 꾸는 분들이기에 만나면 늘 반갑고, 늘 즐겁고, 웃음이 넘쳐납니다.



독서토론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진행

사람이 사람을 발굴하다

마을학교를 꾸려가고 있는 중에 한 학부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태까지 잘 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까지 우리 활동들을 알리고 공유해야 해요?”

내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곧 중학교에 진학할 것이고 그러면 걱정을 하겠죠. 어느 중학교에 보내야하나? 무슨 공부를 더 시켜야 하나? 아이들이 꿈은 가지고 있는지?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우리는 왜 계속 이런 고민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자라고, 커가는 우리지역 모든 곳이 학교이고, 배움의 터전이고, 지역민 모두가 선생님이면 되지 않을까요? 마을교사활동 수업 중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조잘조잘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노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마도 마을교사들의 마음은 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교사 활동 <웹툰 제작과정 배워보기> 수업 진행

물론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아이들 아버지로서 어떤 날에는 내 아이들을 더 챙기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지만 저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마을교사들께서 내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에 든든한 마음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대표론회 메인 퍼실리테이터 진행

앞으로 꿈이자 바람이 있다면 아버지들께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을 디자인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소통디자이너 활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